



**BNK부산銀, 지역축제 활성화 위해 4억 후원** BNK부산은행이 부산지역 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청에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연간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BNK부산은행 빈대민 은행장(오른쪽 네 번째)이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다섯번째)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BNK부산은행



**OK저축銀, 美 하와이 재외동포 학생에 9000달러 장학금** OK저축은행 계열 OK배정장학재단은 지난 6일 미국 하와이에서 장학생과 학부모, 한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OK글로벌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OK배정장학재단 최윤 이사장(두번째줄 빨간옷)이 OK배정장학재단 장학생 및 하와이 한인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K저축은행



**현대모비스, 친환경 미르숲서 다채로운 행사** 현대모비스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조성한 친환경 생태숲에서 올해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 소재 미르숲에서 올해에도 '미르숲 음악회',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체험', '초등학생 대상 생태활동' 등 자연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주말 미르숲 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SKT, 적십자와 손잡고 '찾아가는 이동 AS서비스' 지원** 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와 '이동 AS 인프라 공유 및 사회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의 헌혈 현장에 '찾아가는 이동 AS 서비스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SK텔레콤 문갑민 스마트디바이스본부장(왼쪽)과 대한적십자사 김명현 혈액관리본부장이 MOU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CJ제일제당, 4월 봉사주간 지정** CJ제일제당이 4월 한 달 간을 '봉사주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봉사주간'은 업무에 바쁜 임직원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올해 두 번의 봉사주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봉사 활동을 독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 숙취, 마음 안정에 좋은 '콩나물'



김소영의  
본초테라피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 있는 대표적 음식이 바로 콩나물이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애주가 중에는 술 마신 다음 날에 따뜻하게 끓여낸 콩나물국으로 해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렴한 식재료이면서도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독을 빨리 풀어줄 수 있다.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의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용으로 쓸 때는 뿌리 부분도 떼지 말고 모두 사용해야 한다. 콩나물에는 비타민 C 역시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면역력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감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콩나물 같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대두를 발아시켜서 싹 틔운 것을 콩나물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 콩나물의 어린 싹을 약재로 사용한다. 콩을 발아시켜서 콩 길이 정도만 싹이 난 것을 '대두황권(大豆黃卷)'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심환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약재이다. 예민하고 스트레스로 긴장되어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콩나물은 염증,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을 내려준다. 따라

서 옛날부터 몸이 무겁고 근육의 통증이 있을 때도 사용했으며 열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사용했다. 감기로 열이 올랐을 때는 해열제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콩나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면역력 증강을 돕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경우비타민이나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고 피가 탁해지며 혈액 순환도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식습관을 지속하면 비만은 물론이고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콩나물처럼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며 혈액 순환을 순조롭게 만드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 박사

#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기지수첩  
최신웅  
(정치경제부)

작년 12월 10일 충남 대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근 씨가 위험이 노출된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난 지금 2019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서천의 한솔제지 공장에서 20대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비롯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5톤짜리 해머가 떨어져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힐스테이트리버시티 신출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고를 당했으며 2월엔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이나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96명이었다. 하루에 평균 2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인 작업장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

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 300곳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단속만으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 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와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grandtrust@metroseoul.co.kr

##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승진 △제1차 관실 서기관 신소영 △제2차관실 기술서기관 허진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황식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조미아 △연구개발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영수 △원자력연구개발과 서기관 김종철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서기관 정지수 △미래인재양성과 서기관 이가영 △융합신산업과 서기관 김수정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서기관 오정택 △소프트웨어정책과 서기관 남영준 △정보보호기획과 기술서기관 하준홍 △통신정책기획과 기술서기관 이봉호 △전파기반과 서기관 김기제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박길재 △성장동력기획과 기술서기관 윤영희 △성과평가정책과 기술서기관 함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 윤상웅 △중앙전파관리소 기술서기관 정일성
- ◆하나금융투자 ◇임원 선임 △실물투자금융본부장 정정욱
- ◆환경부 ◇일반직공무원 전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지원 근무 이병화 ◇서기관 전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정호경 ◇사무관 전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조영옥 ◇주사 전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박철영
- ◆시사오늘 △산업2부장 홍성민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장 겸 사업팀장 윤여수

## 부음

- ▲구진회씨 별세, 구자국(디지털이미션)·자철(서울랜드)씨 부친상, 이재물(한국은행 전산정보국 서버팀장)씨 장인상 = 8일 오후 6시 45분,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2-836-6900
- ▲심현경씨 별세, 심원환(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한우·귀순·경순 씨 부친상, 김광열·신호영 씨 장인상, 우은영·송영희 씨 시부상, 심재준·재운 씨 조부상 = 9일 오전,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희리, 053-620-4647
- ▲최규백씨 별세, 최종태(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최순록(한국중부발전(주) 부장)씨 부친상 = 9일 오전 8시 30분,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033-610-5985
- ▲정성모씨 별세, 정진수(단국대 교수, 전 LG시멘트 전무)·정혜진·정혜경씨 부친상 = 9일 오전 1시 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02-3010-2261
- ▲최병채(정우주조장 대표)씨 별세, 이선자(전 분당 수내초 교사)씨 남편상, 최재녕(엘

- 지씨엔에스 책임)·최지은(이랜드리테일 디자인 실장)·최동균(바디밸런스디자인 원장)씨 부친상, 이강희(씨제이이엔엠 팀장)·장호진씨 시부상, 이현철(SK네트웍스 정보통신 부장)씨 장인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3410-6917
- ▲이옥주씨 별세, 장연동(한승서비스 대표)·장해동·장순녀·장태동(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장)·장희동·장희순·장숙희(서울예술여중 행정실장)씨 모친상, 장우정(조선비즈 기자)씨 조모상, 민창규(서울 흥파초 교장)씨 장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 ▲박옥덕씨 별세, 문형진(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팀장)씨 모친상=8일 광주광역시 브이아이피장애타운, 발인 10일 오전 9시, 062-521-4444
- ▲노일현(전 숙명여대 약대 교수)씨 별세, 노영성(한양대병원 피부과 의사)·노영훈(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노영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부친상=7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2-2290-9457
- ▲김양순씨 별세, 장희수(텔런트)씨 모친상 = 8일 오후 고대 안암병원장례식장 206호, 발인 10일 오전 5시, 02-923-4442
- ▲고동원씨 별세, 고봉우·고행우(미로라인 대표)·고동우(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차장)씨 부친상=9일 경기 분당 성요한성당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031-780-1155